

광양시, 전국 최초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보육사업 지원

6월 공식출범...아이 양육 좋은 도시 만들기 성공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한다.

광양시는 "지난 25일 광양시청에서 17명으로 구성된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황재우 ㈜광양기업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124개 과제 중 핵심과제로 2년 10개월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설립하게 됐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시는

5월 말까지 전남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 오는 6월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광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김영선 회장은 이날 발기인 낭독을 통해 "부모는 믿고 맡기고, 보육 교직원들은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이 더 행복한 보육환경을 구축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행복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어린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공동 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재단 설립목적 달



정현복(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광양시장은 지난 25일 광양시청에서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대표 이사 등을 선임했다. <광양시 제공>

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수행 등에 나서게 된다.

황재우 초대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어린이 보육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다가오는 시

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 기업, 사회단체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보육재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제철소 첫 쇳물 생산 30년 새 도약 30년 향한 힘찬 발걸음



김학동(앞줄 가운데) 소장 등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지난 25일 첫 쇳물생산 30주년을 맞아 제철소 복지센터 앞 박태준 명예회장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가 첫 쇳물 생산(이하 출선, 出銑)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87년 4월 25일 오전 9시 광양만에 건설한 제1용광로에서 영광의 첫 쇳물을 생산한지 30년이 됐다.

광양제철소는 출선 30주년을 맞아 영광스러운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함없는 성장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5일 제철소 복지센터 앞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 동상 부근에 영원과 화합을 상징하는 섬 잣나무를 식수하고, '광양제철소 출선 30주년 기념'이라고 새겨진 기념표석을 함께 세웠다.

이날 행사는 김학동 제철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시상하며 광양제철소의 성공적인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제철소 인근에 있는 백운아트홀(금호동 소재) 로비에서는 광양제철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30주년 기념사진전도 열리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사진전은 오는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제철소 직원은 물론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학동 소장은 "광양제철소 출선 30주년을 맞아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다"며 "지금의 광양제철소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며, 그 열정과 정신을 계승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또 다른 3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5년 3월 광양만에 처음 착공해 1987년 4월 준공한 광양제철소 제1용광로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식 설비를 도입해 당시 연산 270만톤, 3800㎡ 규모로 건설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기술 개발과 설비개선을 통해 2002년 2차, 2013년 3차 개선 공사를 거쳐 내용적 6000㎡, 전 세계 600개의 용광로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재탄생했다. 광양제철소에는 현재 1용광로를 포함해 총 5개의 용광로가 가동되고 있다.

현대삼호重, 노사 협력 일감 확보 성과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수주

원가경쟁력·위기 극복 총력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해운시장 불황으로 신규 선박 발주가 저조한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일감 확보를 위해 함께 나서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6일 싱가포르 선사인 센텍마린(Sentek Marine)으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폭 60m, 깊이 29.6m 규모로 원유 30만톤을 실어나를 수 있는 규모이다.

고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High Pressur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와 황산화물 저감장치(SOx Scrubber) 등 최첨단 친환경 사양을 채택해 건조되며, 2019년 상반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는 동형 선박에 대한 옵션 2척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현대삼호중공업 경영진과 함께 노동조합 유영창 지회장도 참석해 수주에 힘을 보탰다.



현대삼호중공업 경영진과 노동조합 유영창 지회장(사진 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6일 싱가포르 선사인 센텍마린(Sentek Marine)과 선박수주 계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주 계약식 행사장에서 유영창 지회장은 "현대삼호중공업은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품질과 납기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고 품질의 선박을 인도하기 위해 전 조합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은 수주절벽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연말 노사 합동으로 선주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 작업물량 확보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5월 2일, 4일 연월차를 활용해 휴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회사의 작업물량 부족 해소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수활성화 정책이 협조하기로 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한마음

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노조의 수주 지원으로 선주는 당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생산 현장은 한결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9척, 6억6000만달러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권오봉 광양경제청장, 예산 확보 총력전

해수부 등 방면 협조 요청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25일 광양경제청 현안사업 협의와 2018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했다.

권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광양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한 수역시설 정비 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정처리 방안을 위한 신규 투기장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권 청장은 이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울촌 1산단이 분양 완료되는 2020년까지 광양만의 새로운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울촌 2산단 매립완료지역(V블록)의 부분 준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매립 완료되는 준설토 투기장 V블록을 우선 준공해 줄 것을 건넰다.

권 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 자녀교육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순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설립 국비 지원과 교육부 설립 승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앞으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고예산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고, 광양만권 현안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층착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중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죽림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4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서과 농장적합 5억
-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바닷가 전망좋은 땅 6337㎡ 3억9천
-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3662㎡ 농장·전원생활용 1억천
- 보성군 회천면 전망좋은 바닷가 5360㎡ 매도 4억9000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임야 40만㎡ 판서·전원주택·발전 등 다용도 개발 적합 매도 12억(운주루 우물전사관미물)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일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투자·매도·교환

- 장흥과 보성간 국도점(장흥군) 5만여㎡ 분할해서 평당 28만원
- 독립성 56233㎡ 신안군 암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0㎡ 투지에 양호함 10억천
- 유동 상업지 331㎡ 상가·원룸 등 적합 매도 4억6천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상가기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천
- 대인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북촌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상가건물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통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내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월산동 문진각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은 공실임, 은행 2억천 보증금 9300 월 350천 3년된 건물 매도 6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